



문화(취재)

2박 3일 청소년 문화 교류의 장

‘전라북도-경기도 청소년 교류 캠프’ 첫 개최



‘전라북도-경기도 청소년 교류 캠프’는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전라북도와 경기도 각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전라북도 부안 및 군산 일대를 무대로 전라북도 청소년 20명, 경기도 청소년 16명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약 2년 전부터 기획되었던 교류 활동은 오랜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진행 되어오지 못하였으나 점차 상황이 완화된에 따라 2023년 첫 테이프를 끊게 되었다. 이하 본문에서 그 일정을 자세히 확인해 보자.

캠프의 첫날, 오후 2시 30분경 경기도 청소년과 전라북도 청소년이 부안청소년수련원에서 첫 대면을 하였다. 곧이어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각 지역의 참가자와 지도자는 서로를 소개하며 얼굴을 확인하고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4시간가량 이어진 ‘도전 99초’, ‘스틱 밤 도미노’, ‘실내양궁’ 등 총 3가지의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기르고 어색했던 행사장의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활동 종료 후 저녁 식사를 마친 청소년들은 2일차부터 진행될 ‘우정 여행’을 위한 조별 회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 8시경 해가 지자 숙소인 ‘청호수 마을’로 이동하여 첫날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일차 OT 종료 후 촬영한 단체사진)

캠프 2일 차에는, 참여 청소년들의 안전상의 이유로 기존 계획이었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활동 체험’ 일정을 취소하고 변경된 일정인 군산 근대화 거리 문화 탐방을 진행하였다. 군산 근대화 박물관 방문을 시작으로, 관람 후 활동의 결과 및 내용을 군산 청소년수련원으로 이동하여 함께 공유했다. 이후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회분 만들기’ 체험을 통해 환경 교육과 업사이클링 활동을 병행하였다. 활동 종료 후 군산 근대화 문화 거리로 돌아와 각 조별로 기획한 우정 여행 일정에 맞춰 활동했다.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복귀하여 레크레이션 활동 및 우정 여행을 진행하며 제작한 영상을 공유하였고 간식을 먹으며 2일차 일정을 종료했다.



(2일차 군산 근대화 박물관)



(2일차 레크레이션)

캠프 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부안에 위치한 청림 천문대에 방문하여 직접 망원경을 만들고 전문 기구를 이용하여 태양을 관측했다. 이후 3일 동안 진행된 일정에서 성실히 참여한 조에 대한 시상과 소감 발표 및 기념품 제공 등을 끝으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주관에 기획되었다. 부안과 군산 지역 일대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모두 돌아보고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일정으로

진행되어 참가자 모두 감탄하였고, 전라북도의 지역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3일차 단체사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타 지역 청소년들과 만나 함께 활동하고 즐길 수 있음에 더없이 좋은 추억을 쌓았으며, 2박 3일의 일정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경기도 청소년, 고1 김세빈), “걱정되었던 처음 걱정이 무색하게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으며, 전북의 관광명소와 특산물들을 맛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경기도 청소년, 고1 공민혜), “먼 곳의 청소년들과 만나고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부족한 나를 챙겨주고 협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한다”(전라북도 청소년, 중3 박찬영) 등 행사에 매우 만족했다고 밝혔다.

2023 전라북도-경기도 청소년 교류캠프를 시작으로 두 지역의 교류 활동은 앞으로도 매년 진행될 예정이다. 성공적인 첫 개최에 이어 2024년, 경기도 지역에서 진행될 교류 활동 또한 성황리에 개최되길 기원하며 더욱 많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천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안화고 강설화 기자

목차 CONTENTS



편집자 레터

- ① 현장과 함께 한 기사특집(청소년교류캠프, 봉사활동, 최근의 학교상황, SNS 및 게임 중독 등) ② 인재와 교육, 입시제도에 대한 기사 ③ 청소년기자단이 소개하는 화성시 여행명소
④ 최근 이슈 조명 (개인형 이동장치, 미래 교통수단, 부자에 대한 생각) 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깊이 음미해볼 기사(소아암 환자 등 다양성과의 공존, 말의 트렌드)

- 1면/문화(취재)** 2박3일 청소년 문화 교류의 장
‘전라북도-경기도 청소년 교류 캠프’ 첫 개최
- 2면/문화(취재)** 화성시청소년봉사단 ‘초아’이야기
-벽화 개선 봉사활동-
- 3면/청소년의 눈** 최근학교 상황 이대로 괜찮은가?
- 4면/청소년의 눈** [양케트]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SNS사용의 문제점
- 5면/사회** 청소년들에게 더욱 깊어지는 SNS의 부정적 영향
- 6면/문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의 심각성

- 7면/사회**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인재의 기준
(부제: 인재양성교육 LIV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선영교수님께 직접 물었다!)
- 8면/교육**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하여
- 9면/교육** 2028대입개편안의 시행,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커다란 변화
- 10면/사회** 의대썰임 현상-의대썰임이 미치는 현상, 대책이 있을까?
- 11면/문화(취재)** 청소년기자단이 소개하는 화성시의 자질명소
- 12면/문화** [양케트] 이번겨울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 13면/사회** 전통키보드와전자전거의 불법적 이용
- 14면/사회** 환경을 지키며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 교통수단
“K-UAM(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하이퍼 루프의 에너지원과 기술
- 15면/문화** 부자에 관한 생각-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나요?
- 16면/사회** 소아암 환자의 눈으로 보는 청소년세상
‘다양한 청소년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
우리의 태도’
- 17면/문화** 말의트렌드“텐션과 사람이 넘치는
요즘 말 탐구서, 말의 트렌드”





♡♡ 화성시 청소년 봉사단 '초아'가 전하는 이야기

벽화개선 봉사활동

“자원봉사를 기획하러 여러 번 반복하여 유엔아이센터에 방문할 때마다 낯은 벽화를 보곤 했는데요...(중략) 많은 청소년이 오고 가고, 향후 미래에도 그려할 ‘유엔아이센터’를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이 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 청소년 자원 봉사단 ‘초아’의 부단장 문시완 단원은 2023년 9월 3일 진행된 봉사 ‘벽화 개선 활동’ 이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봉사단의 9월 정기 활동으로 계획되었던 이번 활동은 봉사단원 외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기자단, 청소년홍보단의 대표 지원자들을 포함하여 총 20명가량의 청소년들이 함께하여 연합 활동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문시완 단원은 “벽화 그리기를하기로 결정하고부터 시행 1주일 전, 벽화 그리기를 도와주실 전문가분들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함께 벽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벽화에 대해 문외한이었기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라며 활동 기획 과정을 설명했다.

더불어 벽화의 디자인 또한 봉사단 변세담 위원이 직접 디자인하였다. 변세담 위원은 “시안을 제작할 때 유엔아이센터가 청소년수련관인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중점으로 두고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엔아이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즐거운 활동들을 하고 있기에 벽화의 그림 및 문구 또한 자유로움을 표현하고자 여러 색채를 더하여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활동 종료 후 봉사단원들은 한계를 넘어선 결과물에 큰 성취감을 느꼈다며 소감을 남겼다. “저는 이번 봉사 활동에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크나큰 성취감을 느꼈지만, 제 마음 속 한 켠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원래 자리 잡고 있던 그림처럼 빛바래게 된다면, 또다시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말이지요. (중략) 모두가 힘을 합쳐 목표를 이루어내고,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아 모두가 끝에는 뿌듯함에 미소 지었으니 말이에요. 평범하고, 아무런 개성도 없는 저이지만, 이상하게도 이럴 때 만큼은 열정에 불타오르더군요”(문시완 단원), “벽화를 처음 그려 본 거라 좀 떨리고 망치면 어쩌지 이러한 생각으로 그려봤는데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과 같이 활동해서 재밌었고 내 인생에 이런 활동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봐서 너무 뜻깊었습니다”(변세담 단원)

또한 “기자단과 홍보단,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함께한 봉사에 대해 큰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문시완 단원), “같이 활동하면서 도와주실 거라고 말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같이 활동해서 뜻깊었습니다!”(변세담 단원)라며 함께 활동한 타 청소년 단체의 지원단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활동 이후에도 청소년 봉사단 ‘초아’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그들이 참여하는 행사 중 12월에 진행될 청소년 단체 연합 축제&시상식 ‘꿈틀’은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의 모든 청소년 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의 장이다. 이 행사 또한 9월에 진행된 ‘벽화 개선 연합 봉사’와 같이 화성시 청소년들의 활동은 각각의 단체가 단독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함께 참여하여 운영되는 협동 단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행사가 될 것이다. 연합 봉사 활동의 성공적인 진행을 축하하며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에 진행될 청소년 단체들의 활동 역시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응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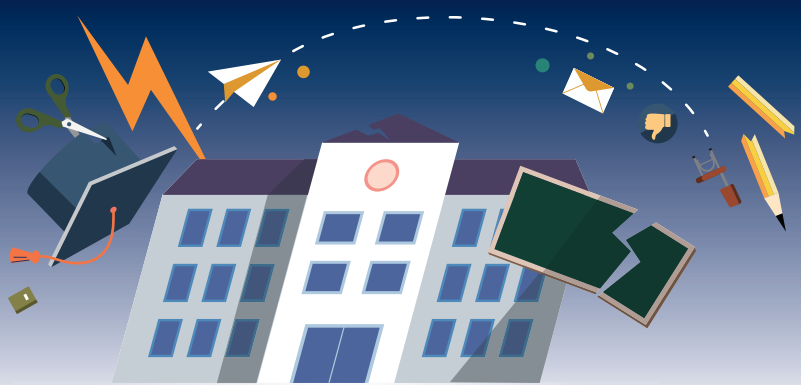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안화고1 강설화 기자

청소년의 눈

최근학교 상황 이대로 괜찮은가?

설문조사를 통해 만나본 선생님-학부모-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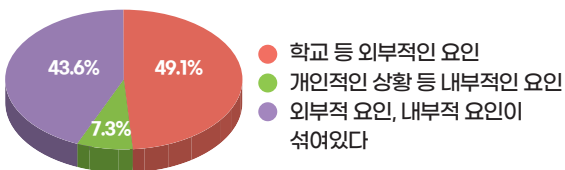


학교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올해 들어 유난히 잇달아 보도되었다. 이런 소식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화성시에 있는 각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객관식 4개, 주관식 2개 등 6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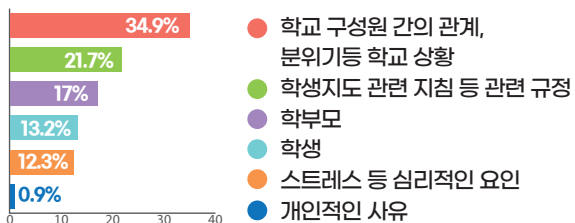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모두 최근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학교 등 외부적 요인'(49%)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섞여 있음'(44%), '개인적인 상황 등 내부적 요인'(7%) 순으로 응답하였다. 6개의 예시 문항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최대 2개 고르라는 질문에서는, 학부모(35%)와 학생(22%)을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라고 지목하였다.

1번 항목인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아는지 묻는 질문과 6번 항목인 응답자의 신분을 밝히는 부분은 전문에 포함되어 제외하였다.

2. 선생님들의 선택과 결정에 다음 중 어떤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3. 다음 중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골라주세요. (최대 2개)



한편,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력에는 공감과 배려, 존중, 바람직한 양육 태도 등과 같은 정성적인 노력 외에도 교권 강화, 교사의 정당성 인정, 정부의 노력, 사회 인식 개선 등 제도적인 노력 역시 함께 제시되었다. 특히, 지나친 개입과 진위 불분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는 벌금, 사회적 교육봉사 또는 법적인 차단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의견도 나왔다.

4.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주관식)

| | |
|---------|--|
| 정성적인 노력 | 공감과 배려: 상호 공감과 배려를 높여야 한다. 존중: 서로서로 위하는 존중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양육 태도: 학생들에게 예의와 존중을 가르치며 부모들이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가져야 한다. |
|---------|--|

| | |
|---------|---|
| 제도적인 노력 | 정부의 노력: 교사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 인식 개선: 교육과 교사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인식하며 신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교사의 정당성 인정: 교사의 지도와 훈육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 외의 새로운 제도: 지나친 학부모의 개입과 진위 불분명 악성 민원 학부모에게는 벌금, 사회적 교육봉사 또는 법적으로 차단이 필요하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수업하는 교실을 한 번씩 순회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아이들 체벌을 강화해야 한다. |
|---------|---|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생님을 존중하고 역사지를 통한 소통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학생) '동료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교사) '자녀를 올바른 길로 지도하며, 학교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믿고 지원해야 한다'(학부모) 등의 답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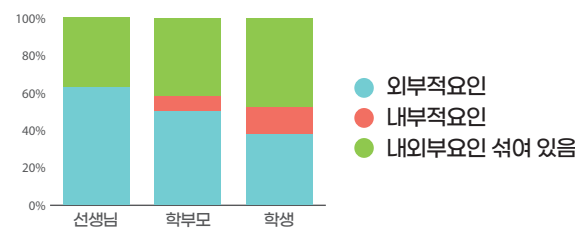
5.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자신의 위치에서 (선생님, 학부모, 학생)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주관식)

| | |
|-----|--|
| 학생 | 선생님을 존중하고 역사지를 통한 소통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자신의 학급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생님의 지도를 따르고,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
| 선생님 | 동료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을 성실하게 지도하고 생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혼자만의 일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자신의 어려움을 공개함으로써 도움을 구한다. |
| 학부모 | 자녀를 올바른 길로 지도하며, 학교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줄이고 믿고 지원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인격 존중을 유지하고 가정 환경에서 학생에게 바람직한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응답했는지 분석해보기 위해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이 선택한 답을 나누어서 표로 정리하였다. (1번, 6번 문항 및 6번 미 회신 응답자의 의견은 제외) 심층적인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과, 6개의 예시 항목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2개를 골라보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상별 답변을 비교해 보았다.

선생님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63%)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왔고, 개인적인 상황 등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답한 응답은 없었다. 학부모 역시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응답(50%)이 가장 높았지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섞여 있다'라는 응답(42%) 역시 상당히 높게 나왔다. 학생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섞

여 있다'(48%), '학교 등 외부적 요인'(38%)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눈에 띄는 점은 각자의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모두 '외부적 요인'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는 점이다.



6개의 예시항목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2개를 고르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모두에게서 '학부모'와 '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두 요인 중에서 '학부모'가 '학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한 응답자별 생각의 차이도 엿볼 수 있었다. 선생님의 경우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요인(22%)' '학생 지도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19%)'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학부모는 '학생 지도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29%)'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분위기 등 학교 상황(17%)'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분위기 등 학교 상황(13%)'과 '학생 지도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11%)'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6개의 예시항목 중 '개인적인 사유'는 학부모와 학생에게서만 응답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학부모 응답 비율(4%)이 학생의 응답 비율(2%)보다는 살짝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 가지 생각할 과제들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개인적인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제도적인 보완과 사회적인 합의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감, 배려, 존중, 경청, 이해 등과 같은 일상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많은 영향력을 지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이 기사를 읽는 독자 모두 설문조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보면서, 해결책을 제시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해결책을 자신의 상황에서 알맞게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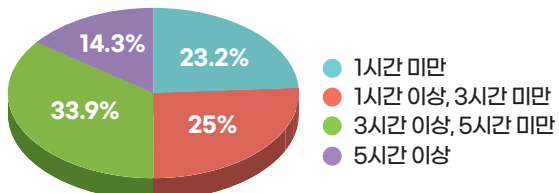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중2 김도연 기자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사용의 문제점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 SNS는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빠른 정보 전달 등 장점도 있지만 단점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SNS중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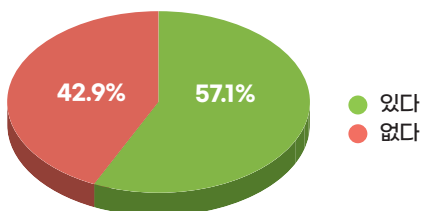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일상에서 SNS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김연우기자는 화성시 거주 청소년 56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SNS사용 시간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시간 이상-5시간 미만인 34% 인 것으로 밝혀졌다.

SNS를 하루평균 얼마나 사용하나요?



그리고 SNS 사용을 시작한 시기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라는 응답이 68%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SNS 사용으로 부모님과 의견 충돌을 겪는다는 청소년이 57%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SNS사용에 따른 우려와 단점이 확인되었다. 갈등의 원인을 조사해보니 자녀와 부모의 희망하는 SNS 시간이 달라서, 자녀의 SNS 생활에 부모가 간섭해서, SNS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서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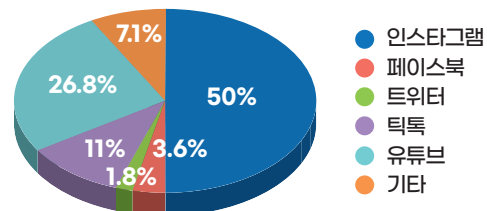
SNS사용으로 인해 부모님과 의견 충돌을 겪은적이 있나요?



그럼 청소년들은 어떤 앱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부모님과 의견 충돌을 빚는 것일까? 이 또한 설문을 통해 조사해보았는데, 인스타그램(50%)이 1위를 차지했고, 유튜브(27%), 틱톡(11%)이 그 뒤를 이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력이 편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어서 등 여러 가지

가 언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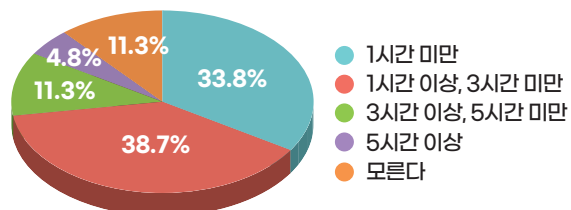
SNS를 사용할때 주로 어떤 앱을 사용하나요?



이번에는 화성시 거주 학부모 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자녀가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는지,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지 등 상세히 알고 있는 학부모가 38%로 1위를 차지했고, 몇 시간 정도 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는 학부모가 32%, 사용하는 것 까지만 알고 있는 학부모가 30%로 모두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3시간 미만(25%)이 1위로 나왔는데, 실제 청소년 대상 하루 평균 SNS 사용시간 중 최고응답을 기록한 3시간 이상-5시간 미만(34%)과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설문 참여자의 자녀는 하루 평균 SNS를 얼마나 사용하나요?



이런 청소년들의 SNS 사용 시간에 대해 설문 응답한 부모 중 70%가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의견(많이 하지 않았다)과 부모님들의 의견(조금 덜 하라)이 대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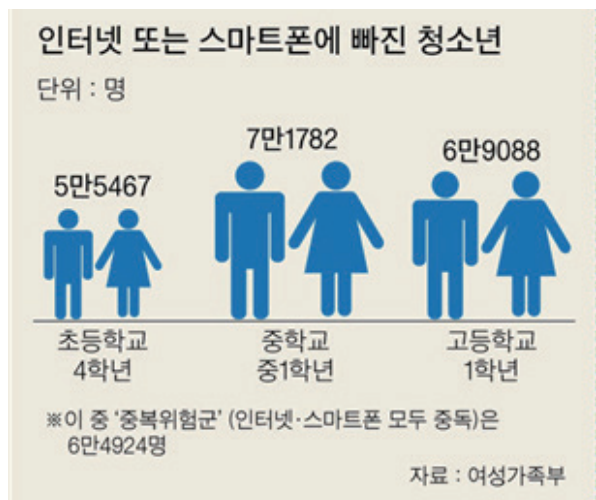
과도한 SNS사용은 부모님과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학부모와 자녀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적당한 SNS 사용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병점중1 김연우 기자

특 | 사 회

청소년들에게 더욱 깊어지는 SNS의 부정적 영향

최근 청소년들 간의 대화에서 서로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같은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알지만 또 다른 누구는 알지 못하는 신조어가 있다는 뜻인데, 그 배경으로 SNS가 지목되고 있다. SNS를 통해 낯선 표현들이 확산되어 청소년들 간에도 이질감이나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SNS 사용은 지금도 과도하다는 평이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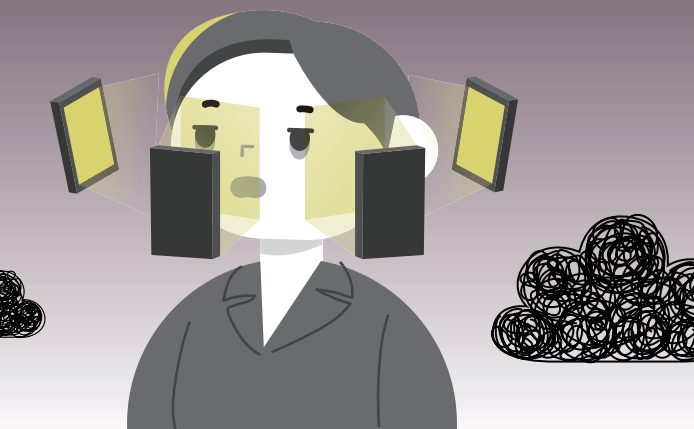


기준연도 2018년 통계자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들의 SNS 사용이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지 않는을까 우려할 것이다.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초·중고 교사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SNS는 장점도 있다. 먼저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해 배움을 확장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터넷 강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또한, SNS는 사회적 연결을 촉진시킨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연결될 수 있으므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준다. SNS로 서로의 관심사나 취미를 공유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새로운 경험을 가져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과도한 SNS 사용은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시기이자 효율적으로 시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대인관계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SNS에 얽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험 기간에도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몰두하게 된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SNS 사용을 스스로 자제해야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종류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 인스타그램은 다른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검색하거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사람을 팔로우할 수 있는 앱이다. 유튜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영상을 공유하여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공유 및 업로드할 수 있는 앱이다.

하지만, 다른 사용자가 올린 영상에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종종 말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거친 말, 모욕을 주는 말이 오가게 되면서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으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SNS 앱의 문자나 영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동반사적인 행동이 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SNS에 묶어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 SNS를 활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이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국 영향력은 사용자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청계중1 이지우 기자

특 | 문 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의 심각성

한국은 게임산업 세계 4위(2022년 기준)이다. 이처럼 게임산업의 꾸준한 성장 속에 청소년들은 다양한 게임을 여가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산업의 성장은 청소년들을 게임에 몰입하도록 만들어, 게임중독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었다.

먼저, 게임 중독의 원인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해 알아보자. 게임은 주로 모바일 게임과 PC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바일 게임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플레이 할 수 있는 휴대성과 쉬운 접근성을 자랑한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몰입감은 낮지만, 무료-투-플레이 모델(처음엔 무료이지만 고급, 특수 기능에 대해 요금을 부과)을 사용하여 중독성을 높인다. 반면에, PC 게임은 고사양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지만, 높은 그래픽 품질과 복잡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여 높은 몰입감과 장기간의 시간 소모로 인한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의 특징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게임중독을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모바일 게임의 휴대성과 쉬운 접근성은 어디서나 손쉽게 게임에 접근하고 플레이 할 수 있게 만들며, 무료-투-플레이 모델은 사용자를 게임 내로 끌어들이고, 한편 PC 게임은 그래픽과 게임플레이의 품질로 몰입감을 높이는 동시에 긴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 강한 중독성을 유발한다.



출처: 쿠키런 킹덤 홈페이지(모바일 게임)

게임중독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청소년의 일상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 게임을 하다 보면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이에 따라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 시력 저하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게임중독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성적이 하락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게임 중독은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게임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우려하며, 이 때문에 자녀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면 가정 내 폭력이나 불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 도입, 게임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정책만으로는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게임 중독에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시간을 조절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의 소통과 협력 역시 필요하다. 부모들은 자녀들과 협의해 자녀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고, 게임 대신 다른 취미 활동을 권장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게임은 즐거운 여가이자 취미가 될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크고 작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몰입과 사용은 게임 중독과 같은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한백중2 욱심준 기자

≡ | 사 회

변하는 사회, 변하는 인재의 기준

인재 양성 교육 Liv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선영 교수님께 직접 물었다!



‘인재’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재주,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칭한다. 또한 이러한 인재는 시대와 상황,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조건과 육성방법도 변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100대 기업의 인재상 변화’에 대한 자료를 보면 매년 조금씩 인재상의 순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재상 순위 변화 추이

| 구분 | 2008년 | 2013년 | 2018년 | 2023년 |
|-----|--------|--------|--------|--------|
| 1위 | 창의성 | 도전정신 | 소통, 협력 | 책임의식 |
| 2위 | 전문성 | 책임의식 | 전문성 | 도전정신 |
| 3위 | 도전정신 | 전문성 | 원칙, 신뢰 | 소통협력 |
| 4위 | 원칙, 신뢰 | 창의성 | 도전정신 | 창의성 |
| 5위 | 소통, 협력 | 원칙, 신뢰 | 책임의식 | 원칙, 신뢰 |
| 6위 | 글로벌역량 | 열정 | 창의성 | 전문성 |
| 7위 | 열정 | 소통, 협력 | 열정 | 열정 |
| 8위 | 책임의식 | 글로벌역량 | 글로벌역량 | 글로벌역량 |
| 9위 | 실행력 | 실행력 | 실행력 | 실행력 |
| 10위 | - | - | - | 사회공헌 |

자료: (2008년~2023년 ‘100대 기업의 인재상 순위 변화’, 대한상공회의소

본 설문에 참여한 우리나라 100대 기업은 국가 경제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이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궁극적으로 국내 사회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육부를 비롯한 각 지역의 교육청은 학생들을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립해 왔으며 매년 교육 비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회의 모습과 인재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지금의 사회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노력이 필요할까? 위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화성시 청소년 기자단 김연우 기자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선영 교수님과 메일을 통한 비대면 대담을 가졌다.

김연우 기자(이하 김기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에 따라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박선영 교수(이하 박 교수) 현대 사회는 ‘편리함’, ‘시간의 효율성’을 두고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는 특징도 과거와 다른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김기자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박 교수 빠른 변화들을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그 속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인재가 아닐까요?

김기자 인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이 있을까요?

박 교수 여러 덕목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실함’과, 새로운 문화, 기술을 잘 받아들이는 ‘적응력’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자 말씀하신 성실함, 적응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선 어떤 교육을 진행해야 할까요?

박 교수 학생들을 교육할 때, 능동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처럼 사고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자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사회가 바라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 교육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나요?

박 교수 모든 교육과정마다 아쉬움은 있겠지만 개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평가 중심의 내용보다 자유롭게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자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어떤 인재로 양성하고 싶으신가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박 교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말을 많이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질문도 많이 하고, 질문에 답변도 많이 하도록 평가에 참여 점수를 따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과목의 경우, 플립드러닝 과목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자 그렇군요.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하는 수업.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거네요. 혹시 학부모라면 학생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뛰어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박 교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진로를 학부모 욕심으로 제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성적만을 학생의 성취도, 능력의 지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기자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좋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늘어나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박 교수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발전이 있겠죠? 각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자 혹시 미래 사회 모습과 인재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박 교수 하하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 앞으로는 한 분야만 잘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를 다 잘하는 올라운드(all-round) 형태의 인재가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선영 교수님과 대담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사회가 변화하면 인재상은 변화한다는 점, 그러한 변화를 잘 받아들이 수 있는 적응력이 중요하다는 점,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인재는 학업 성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꼽는다면, 인재는 학생 자신과 학생의 부모,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을 위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와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이였다.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올라운드 형태의 인재도 지금부터 다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안하교 강설화, 병점중1 김연우 기자



박선영교수 프로필

박선영 교수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인공지능융합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울산과학기술원에서 2018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1년 미국 NASA GSFC(Goddard Space Flight Center) 방문 연구원을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농어촌 특별전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치열한 대학 입시는 주로 서울과 수도권 을 중심으로 집중된다. 그 때문에 외곽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은 부족한 정보력과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교육 환경 탓에 대학 입시 경쟁에서 소외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농어촌 특별전형'이 도입되었다. 이 특별전형은 농어촌 출신 학생들에게 추가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정한 대학 입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도약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요약하면, 농어촌 특별전형이란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가진 농어촌 고교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생긴 전형이다. 이러한 농어촌 특별전형의 득과 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수원과 안양 지역 고등학생의 대학 입시와 진로 컨설팅을 진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와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이현 선생님은 중학생의 실업계 고등학교 이해를 위한 자료 집필에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는 와우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1. 농어촌 특별전형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소득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실시되는 전형의 하나입니다. 도시에 비해 교육 환경 측면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고교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제도이죠.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 농어촌 특별전형은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교육 환경의 격차를 줄이고자 도입되었어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교육의 양극화를 보완하기 위해 상위권 대학부터 농어촌 학생을 소수 선발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는 1994년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에 관해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유형 I과 유형 II로 구분되어요. 따라서 학생 본인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유형 I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이고, 유형 II는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형으로 구분되어요.

유형별로 요구되는 재학과 거주 관련 충족 기준이 다르니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학생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특히 유형 I에서 졸업 전 부모 혹은 학생의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자격 유지 사항에 관해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다양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원 자격 유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가 있으며, 대학에 따라 기본적인 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따라서 지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4.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을 충족한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일반전형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시행 결과로 보아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치대·의대·한의대 계열과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런 전형으로 지원하더라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를 갖추어야 합니다.

5. 농어촌 특별전형을 악용하여 일부로 시골에 전학을 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도의 장점이 있으면 분명 감내해야 하는 이면도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생활권을 변경하며 거주지와 전학을 결정하고자 할 때 어떠한 환경에서 학생이 교육받고 생활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고민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6.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금까지의 결과와 효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으며,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형의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농어촌 특별전형은 잘 활용하면 좋은 입시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대학별 입시 결과에도 알 수 있듯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대학 등록률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전형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꼽는다면 인구 이동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전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령기 이전에 농어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이 그 이유지요. 다만 도시와 농어촌 간의 물리적 거리나 생활권이 비슷한 곳으로 인구 이동이 주로 이루어져 그 영향력은 한정적으로 나타납니다.

7. 해당 전형 방식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농어촌 지역 중에서도 물리적 거리와 교육 환경적 혜택이 절실한 지역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도시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상의 '읍, 면'인 농어촌 지역인 경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의 대학 입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형을 충족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단점들을 장기적으로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안정된다면, 농어촌 특별전형은 당초 도입된 취지와 목적을 살려 농어촌 고교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와우중2 김민아 기자



특 | 교 육

2028 대입개편안의 시행,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커다란 변화

2023년 10월 10일, 정부는 2028 대입개편안을 발표했다. 2009년생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개편안은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대입제도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 현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먼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존과 달라진 내신 등급제이다. 원래 9등급제였던 고교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된다. 1등급은 전체의 10%, 2등급은 24%(누적 34%), 3등급은 32%(누적 66%), 4등급은 24%(누적 90%), 5등급은 10%(누적 100%)로 평가되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절대평가였던 것에 반해 전체 학년 학교생활기록부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표기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하나 주목할 고교내신 변화는 논·서술형 평가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오지선다형 평가가 중심이며 논·서술형 비율은 20~30% 정도인데, 이제 논·서술형 문항 출제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려 논·서술형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전망이다.

| | 고1 | 고2,3 |
|------|-----------------------------------|------|
| 개편 전 | 9등급제 상대평가 | 절대평가 |
| 개편 후 | 5등급제 절대평가/상대평가 병행 표기 (학생생활기록부) | |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다. 2028 대입개편안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변화는, 바로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의 폐지이다. 이

전의 수능은 국어 2과목 중 1가지 선택, 수학 3과목 중 1가지 선택, 탐구는 17과목 중 최대 2가지 선택이었다(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하지만 2028 수능부터는 9등급제는 유지하되,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구분 없는 수능으로 바뀌게 된다. 즉 국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동일하게 수능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고, 융합학습이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 최고난도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시 발표됨으로써 킬러문항 배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침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영역 | 현행 (~2027 수능) | 개편 (2028 수능~) |
|----|---|----------------------------|
| 국어 | 공통(독서, 문학) +2과목 중 택1 (화법과 작문 or 언어와 매체) |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
| 수학 | 공통(수학 I, 수학 II) +3과목 중 택1 (확률과 통계 or 미적분 or 기하) | 공통 (대수,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
| 영어 | 공통 (영어 I, 영어 II) | 공통 (영어 I, 영어 II) |
| 탐구 | 17과목 중 최대 택2 (사회 9과목/과학 8과목) | 공통(통합사회) 공통(통합과학) |

*단 수학의 경우, 미적분 II와 기하 영역에서 '심화 수학'을 선택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중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큰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 중 하나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의 배치였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상대평가제가 유지된다면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몰려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자유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수능과의 연계가 적지만 2028 대입개편안에서는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되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이 강화될 전망이므로 두 제도가 서로 지향하고자 하는 바도 다르다. 이렇듯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개편안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모순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렇게 2028 대입개편안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 모든 것들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4년 예고제에 따라 내년 2월 이내에 확정이 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교육제도를 개편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의 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만큼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절대평가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상대평가란? 학업 성취도를 학생이 속한 집단 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동탄목동중2 손지후 기자

특 | 교 육

의대 쏠림 현상

‘의대 쏠림’이 미치는 현상, 대책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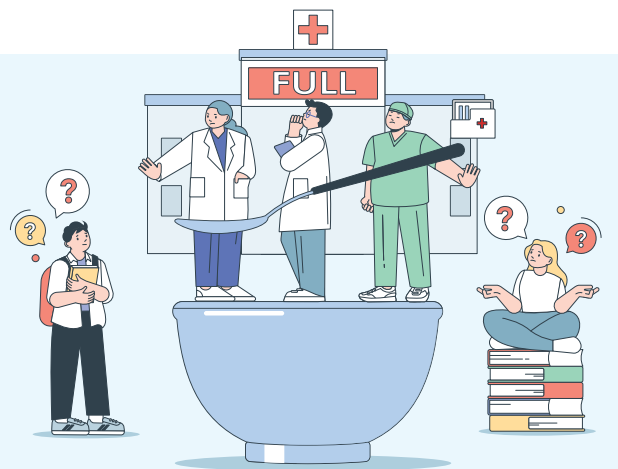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에 끝났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은 ‘킬러문항’ 배제와 ‘의대 열풍’이 이어져 N수생 등 졸업생이 15만9천742명(전체 응시자 중 졸업생 비중, 31.7%)이 응시하여 그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은 ‘의대 쏠림’ 현상이다. 학생들은 다른 전공에 관심이 있더라도 성적이 된다면 의대를 지망하는 경향이 높다.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서도 학생의 성적이 상위권이면 의대를 지망하지 않아도 ‘의대반’으로 편입시킨다. 과거에는 공대가 취업 열풍 속에 인기 전공으로 떠올랐다면, 현재는 그자리를 의대가 대신하고 있다.

‘의대 쏠림’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는 동시에 경제적 보상이 큰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 과거에는 공대를 졸업하면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토목부터 전기전자, 기계 분야와 같은 전공들이다. 지금은 그 관심이 의대로

이동한 것이다. 의대 또한 소득이 꾸준하면서도 높아 사회적 분위기가 안정적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고 평생직장 개념으로 볼 때에도 이보다 더 나은 학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대 쏠림’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태진 선생님께서 따르면, 현실적으로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등을 통해 미래 의료인으로서 적절한 인성과 적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게 되므로 면접 등을 통해 의사로서의 인성적, 가치관 등을 평가해 선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 사회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과거 공대가 그랬던 것처럼 의대 또한 자연스럽게 유행이 지나갈 것이고, 인구감소로 인해 의사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점점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평생직장 환상이 깨질 것이라 예상한다.” 고 전했다.



‘의대 쏠림’은 단순한 입시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 즉,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사회의 만성적인 문제를 잘 보여주는데,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교육 중심 교육,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밀집 및 지방 소멸 등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의대’는 사회적 성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하고 싶은 전공을 택해 직업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한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의 변화에 고려할 때 유망한 직업군에 속하는 것도 맞다. 하지만 단지 금전적인 이득이나 주변의 시선 등만을 고려하여 의대를 꿈 꿀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의대라는 진로가 정말로 나의 적성에 맞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동탄목동중2 홍서준 기자

문화(취재)

화성시청소년수련관 기자단이 소개하는

화성시 지질명소



화성시에는 총 8개의 지질명소가 있다. 지질명소가 되려면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퇴적층이 살아있는 규암인가, 시스템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기자단은 8개의 지질명소 중에서 제부도와 공룡알 화석산지를 방문하였다.

기자단이 방문한 제부도는 제약 부경의 약자이다. 이곳은 갯벌이 평평하지 않고 물길이 있어 갯고랑으로 이루어진 지형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제부도로 들어가면, 날이 좋을 때에는 광장에서 수직으로 9km 떨어져 있는 입파도가 보이는데, 붉은 암석인 홍암이 있어 숨은 비경을 자랑한다.

또한, 매가 알을 품고 있는 듯한 매바위를 볼 수 있다. 매바위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아치 모양의 동굴인 시아치에서 해식애의 후퇴 과정을 거치며 육지와 분리된 후 남은 기둥 형태의 바위섬인 시스템으로 변화된 규암으로,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사암에서 변성된 것이다.

제부도는 물이 들어오면 수영하고 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 등을 잡으면서 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제부도의 갯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해양자원이다. 제부도의 별미로는 낙지가 꼽히는데, 갯벌 체험 후 직접 잡아 더 맛 있다는 평이 있다.

제부도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케이블카가 생긴 이후에는 더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는 추세이다. 제부도에는 여러 포토 스팟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트파크는 제부도가 가진 매력을 동서남북에서 찍을 수 있게 해준다. 아트파크에서 뒷모습을 찍으면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기자단이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659에 위치한 공룡알 화석산지이다. 공룡알 화석 산지에서는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는 공룡이 발견되었다. 화성에서 발견된 한국 뿔 달린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공룡은 각룡류의 특징인 부리 형태의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꼬리의 신경배돌기는 꼬리 척추 마디보다 5개나 긴 것이 특징이다.

원래 공룡알 화석산지는 시화 방조제를 건설하고 나머지들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려 했는데 물이 썩자 방조제 안쪽의 담수를 바닷물로 채워 해역으로 관리하는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관광협동조합에서는 이곳 제부도와 우음도를 함께

둘러보는 에코티어링 체험을 운영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여기 공룡알 화석산지에서는 갯질경, 통통마디, 고라니 발자국 등 여러 식물과 흔적들을 볼 수 있다. 또한 공룡알 화석산지에서 차로 1분 거리에 있는 송산그린시티 전망대(평일에만 운영)가 있다. 전망대 아래로 반달 섬과 서해안 고속도로, 공룡알 화석산지가 보이고 날씨가 조금이라도 좋으면 약 20km 떨어진 인천대교가 보인다.

기자단은 제부도와 공룡알 화석산지를 옮겨갈 가족들과 나들이 가기 좋은 곳으로 추천한다. 제부도를 방문할 때는 물 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니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공룡알 화석산지에는 추후 과학관이 건설될 예정이니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나들이 장소가 될 것이다. 석양이 일품이기도 한 공룡알 화석산지와 제부도의 자연경관을 함께 즐겨봤으면 한다.

화성의 지질명소 8곳

| | |
|-----|--|
| 우음도 | 우음도는 화성 지질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과거 섬이었던 우음도 서쪽에서는 선캄브리아시대의 변성암이 넓게 분포하고, 이를 뚫고 들어간 중생대 화강암이 다양한 크기의 암맥으로 나타난다. 습곡, 단층, 암맥 등 다양한 지질구조가 분포한다. |
| 제부도 | 제부도는 '모세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지이다. 하루에 단 두 번 신비한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다. 제부도는 북쪽 해안 데크로드를 따라 다양한 지질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며, 탐재산 정상에 올라가면 서해바다의 경관을 만날 수 있다. |

| | |
|--------------|---|
|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 공룡알 화석산지는 1억 년 전 공룡들의 삶터이자 한반도 최고의 공룡 산란지라 불리는 곳이다. 조간대에 있는 작은 섬들 한염, 하한염, 중한염, 상한염, 개미섬, 닭섬등을 볼 수 있다. 각 작은 섬들에서는 역사의 흔적과 공룡알 등을 볼 수 있다. |
| 전곡항 충상 응회암 | 전곡항은 그 자체 지질적으로 흥미로운 곳 중 하나로, 충상 응회암이라 불리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해안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충상 응회암의 생생한 지층과 단층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곳은 지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
| 백미리 해안 | 백미리 해안은 파도가 조각한 눈길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해안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갯벌 체험 명소로도 유명하며, 해안에서 조개와 해조류를 수집하며 자연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
| 궁평항 | 궁평항은 아름다운 낙조가 펼쳐지는 곳으로, 일몰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이다. 해안으로부터 바다를 바라보며 노을이 물에 비치는 장면은 감동적이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온을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
| 입파도 | 입파도는 입파홍암과 지각 변동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습곡을 볼 수 있는 섬이다. 이곳에서는 화산암과 화강암 등 다양한 암석을 관찰할 수 있으며, 지각의 역사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이다. 지질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학습 장소 중 하나이다. |
| 국화도 | 국화도는 육계도로 이어지는 바닷길과 지각 변동으로 만들어진 습곡이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자연과 지질학적 특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해안을 따라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



● 추천코스 1

공룡알 화석산지 - 우음도 - 제부도로 이동하여 점심 먹기 - 백미리 해안

● 추천코스 2

백미리 해안 - 전곡항에서 점심 먹기 - 우음도 - 공룡알 화석산지

● 추천코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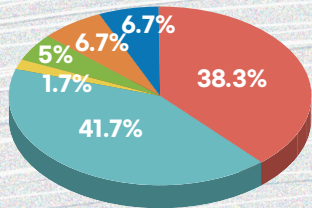
전곡항 충상 응회암 - 제부도 - 입파도 - 국화도 - 궁평항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청계중1 이지우, 청계중1 최정원
중2 김도연, 안화중1 이호준 기자

화성시민들이 소개하는 겨울 가족 여행지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겨울에 가족과 가고 싶은 여행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59명(초등학생 6명, 중학생 24명, 성인 30명)이 참여하였고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다음 중 가고 싶은 여행지는?



- 월문온천
- 제부도(바다, 케이블카)
- 유엔아이센터 빙상장
- 우리꽃식물원(온실)
- 반석산(동탄)
- 기타

기자단이 제시한 여행지 중에서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월문온천과 제부도(바다, 케이블카)가 각각 42%, 38%로 다른 장소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 뒤로는 반석산, 우리꽃식물원(온실), 유엔아이센터 빙상장이 각각 7%, 5%, 2%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월문온천은 상대적으로 중학생 이상(23명 응답 중 중학생 10명, 성인 9명)에서 높은 응답이 나왔다면, 제부도는 성인(25명 응답 중 성인 15명, 중학생 9명, 초등학생 1명)에서 응답비율이 높아 참여자별로 선호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여행지를 고른 이유는?

해당 여행지를 고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역시 계절적인 선호를 엿볼 수 있었다. 월문온천의 경우 '온천에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우리꽃식물원(온실) 역시 '온실이라 따뜻한 장소에서 식물들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어서'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제부도(바다, 케이블카)를 선택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바다 위 케이블카를 타보고 싶어서' '제부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가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었다. 유엔아이센터 빙상장 역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나왔다. 한편, 반석산(동탄)을 선택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등산하고 싶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여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러분만 알고 있는 화성시의 좋은 여행지가 있다면 소개해달라는 주관식 설문에서는 다양한 여행지가 추천되었다.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는 공룡알화석산지를 필두로, 용건릉, 다람산공원, 무봉산 자연휴양림, 향남오토캠핑장, 비봉오토캠핑장, 보통리저수지가 언급되었다. 코로나 이후 트렌드가 된 오토캠핑장이나 자연휴양림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여행지 후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지는 화성아트홀, 역사박물관, 화성 ICT생활문화센터 등이 있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안화중1 이호준 기자

특 | 사 회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의 불법적 이용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그로 인한 불편 혹은 각종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까지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이용이 불법인 이유는, 이들 이동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운전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는다. 또한 혼자 타는 1인승임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타기 때문에 사고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QR코드만 찍으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대여가 간편하다. 여기에 이용하는 방식이 쉽고 속도까지 빠르다. 하지만 이들은 사용 후 제대로 된 곳에 주차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 세워놓거나 심지어는 거의 버리듯이 바닥에 던져 놓고 가기도 한다. 결국 이로 인해 많은 보행자들이 통행에 방해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 또한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보행 중 쓰러진 전

동킥보드에 걸려 다친 사례, 길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난 사례, 차도를 지나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례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대책이 부족하고 유효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법과 제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헬멧조차 쓰지 않고 이용하는 이용자들,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면허 인증 없이 탈 수 있게 해놓고 이용 후 방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회사들. 모두가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 두면 더 큰 사고들이, 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이용자들의 실천에 달려있다. 더욱 강화된 법률,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용자들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능동중3 이환희 기자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이 30kg 미만 인 것으로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이에 해당됨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수칙

- 운전면허 필수**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만 16세이상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착용 필수**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등화장치 작동**
- 야간에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 확인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숙지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수칙

- 승차정원 위반**
-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 음주운전 절대 NO!**
-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은 불법!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불응 범칙금: 13만원
- 13세 미만 운전 불가**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10만원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방법은?

1 안전거리 확보

주행 시 다른 전동킥보드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인도 주행 금지

전동킥보드는 속도가 빨라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큼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방법은?

3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가장자리 이용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함.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4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가기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 하지 않아야 함

환경을 지키며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 교통수단

K-UAM(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하이퍼 루프의 에너지원과 기술

세계는 새로운 교통 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비행기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이 나타난 것이다. 동화 속에서만 나오던 매우 빠른 기차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우리 미래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K-UAM(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K-Urban Air Mobility)은 항공기를 활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 교통 체계로 떠오르고 있다. 승용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달릴 수 있는 이 첨단 교통 시스템은 미래 도시에서의 교통 체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UAM은 100% 전기 구동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다. 전기 모터, 즉 전기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이 체계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예상 시간은 도시 간 이동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다. 2025년 상용 서비스 최초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는 K-UAM은 더 나아가 2030년 본격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도시근로자 1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유발 효과 약 23조 원, 부가 가치 유발 효과 약 11조 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환경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주는 K-UAM은 우리의 미래 도시를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미래 교통수단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선보인 '하이퍼루프'가 있다. 하이퍼루프는 환경을 생각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 교통수단은 최대 시속 1220km의 속도로 진공 튜브를 통해 움직이며, 미세한 마찰과 저항조차 없어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자동차로 약 5시간이 걸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약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한, 자기장을 발생시켜 이동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진에도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이퍼루프는 최대 20명에서 3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로부터 얻은 태양열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운영으로 비용도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하이퍼튜브'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고 한다.


하이퍼루프와 K-UAM은 독창적인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우리의 삶을 혁신하고,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이 주요 미래 교통수단이 상용화되는 그날을 기다려보자.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청계중1 최정원 기자

〈시대별 교통수단〉

| 고대 시대 | 18세기 후반~19세기 초 | 19세기 말 |
|-------|----------------|-----------|
| 말과 마차 | 기차 도입 및 증기기관 | 내연기관과 자동차 |

| 19세기 말~20세기 초반 | 20세기 | 현재 | 미래 |
|----------------|---------|----------------------|----------------|
| 전기 기술과 전기 자동차 | 대중교통 확대 | 고속 열차의 등장 및 자율주행차 등장 | 하이퍼루프와 K-UAM 등 |

| K-UAM | 하이퍼 루프 |
|--|--|
|  |  |

출처: (현대자동차그룹 트위터 / 일론머스크 트위터)

부자에 관한 생각-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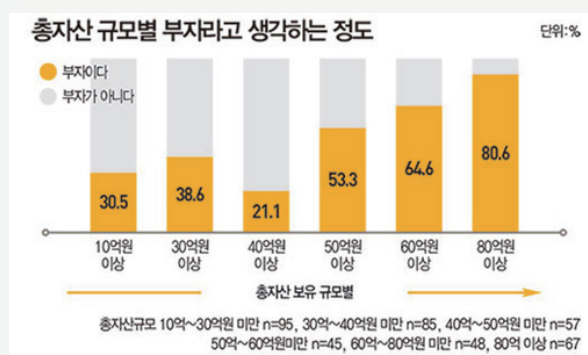
누구나 한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미래에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장래 희망, 구체적인 삶의 계획도 없이 그저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과연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부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부자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높은 월급을 받고 이를 모아 생활하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월급만으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소득은 약 300만원이다. 작년 평균 집값이 10억 정도라고 할 때 평균 직장인의 소득으로 집 하나를 사려면 대략 27년이 걸린다. 생활비를 제외한 돈을 모두 써서 이 정도라면 현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쯤 되면 다들 눈치로 알 수 있듯이 월급을 받는, 이른바 월급쟁이는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긴 힘들다. 업계와 전문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월급쟁이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셈이다. 도서 <4개의 통장>(저자 고경호)에 따르면, 부의 방정식은 곱셈의 법칙을 따르는 법인데 월급쟁이는 덧셈의 법칙에 얽매어있기 때문이다.

덧셈의 법칙과 곱셈의 법칙을 좀 더 설명하자면, (+)가 돈이 들어오는 것 (-)가 돈이 빠지는 것 0이 변수라고 생각하고 기본값을 10으로 가정해 보자. 덧셈의 법칙은 $10+2=12$ 또는 $10-2=8$ 이 될 수 있고, 곱셈의 법칙은 $10 \times 2=20$ 과 $10 \times (-2)=-20$ 혹은 $10 \times 0=0$ 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곱셈의 법칙은 위험성은 있지만 성공했을 경우 큰 이익을 얻고 덧셈의 법칙은 큰 위험은 없지만 별로 이익을 못 보는 원리이다.

대다수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을 보면 주로 공무원이 되었거나, 대기업에 취직했거나, 전문직이 되었을 것이다. 업계와 전문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월급쟁이가 된 것이다. 물론 공부를 잘한다면 직업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개탄하며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어쩌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순종적인 월급쟁이’를 사회에 배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기, 높은 시험점수 받기, 좋은 학교 입학하기 등을 당연히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하고 주도적으로 자

신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암기와 정보의 처리는 AI가 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은 다르다. <돈의 속성>의 저자 이자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김승호 회장은 부자를 ‘본인 소유의 집이 있고 비근로 소득이 541만 1,383원이 넘고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욕망 억제 능력 소유자’로 정의했다.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위대한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Andre Kostolany)는 부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바로 행하는 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에 관한 생각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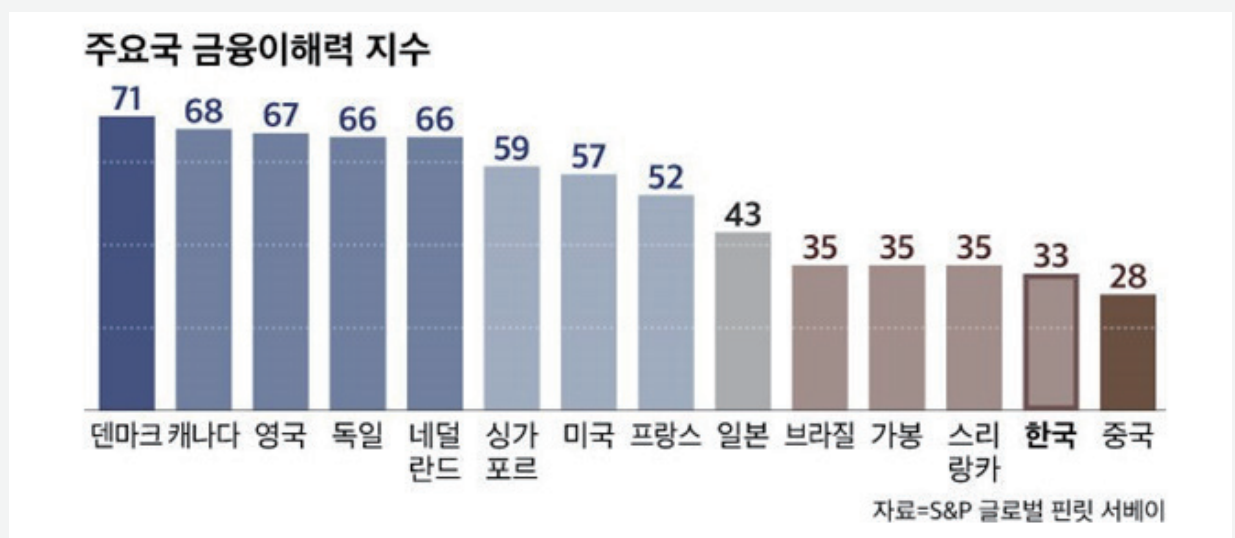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미래에 할 수 있는 노력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한 태도는 무엇일까. 먼저, 자신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다. 아마 보통의 청소년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의 방이나 책상을 지저분한 채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잘 해내는 사람이 큰 것도 잘 해낸다’라는 말이 있듯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되어 있어야 큰 일도 잘할 수 있다. 환경이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 되던 일도 잘 풀리고 집중도 잘 되어 효율성이 올라간다. 실제로 많은 회사가 환경 조성에 많은 공을 들인다.

두 번째, 문해력을 키운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뜻한다. 문해력이 낮다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계약서나 세금 계산, 통신요금 등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을 놓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BS 프로그램 ‘당신의 문해력’에서는 성인 대상 문해력 테스트를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연봉을 비교했는데, 결과가 좋은 사람들 대부분의 한 달 버는 금액(약 1천만원)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력 높은 사람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에는 책 읽기와 어휘 공부, 글쓰기 등이 있다.

세 번째, 금융교육을 중시한다.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어서 학생들이 금융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요국 금융이해력 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덴마크, 미국, 가봉 등 14개의 국가 중 13위를 하여 거의 꼴지에 가까운 기록을 차지했다. 금융교육을 어렸을 때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돈에 대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금융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자신의 용돈을 직접 관리해보는 것 등이 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부자에 대한 정의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자가 되려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 연말을 맞아 이 기사를 통해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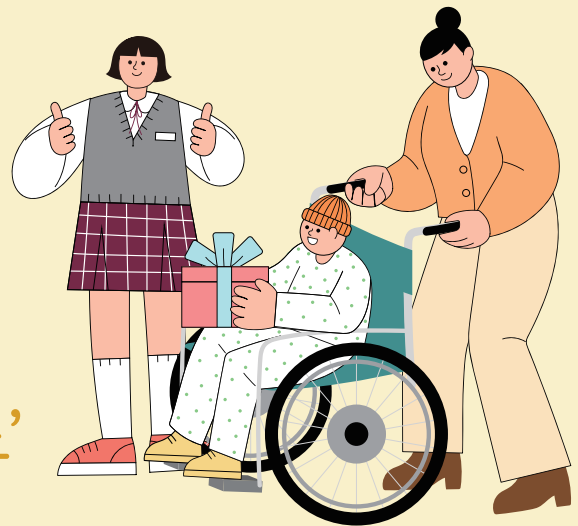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석우중1 김보민 기자



농 | 사 회

소아암 환자의 눈으로 보는 청소년세상

‘다양한 청소년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 우리의 태도’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쉬워진다. 또한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 성인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가지지 못한 불분명한 중간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는 방황의 시기라고도 불린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과 자신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소년 시기에 자아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한 명 한 명은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소중한 존재들이다. 대부분 “청소년”이라 하면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장애인, 영양실조, 사회적 배려 대상자, 희귀병 환자, 다국적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지만 그중에서도 질병과 사투를 벌여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 과정이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희귀병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아마 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남들과 다르게 어떤 치료를 받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또한 죽음과 가장 가까이 싸우고 있는 이들에 비해 죽음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아직 너무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희귀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아암”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소아암이란 6세 미만의 소아기와 초등학교 고학년에
서 중학생 시기에 걸리는 질병으로 급성백혈병·악성림
프종·뇌종양·고환태아성암·신경아세포종·간암·골
육종·바이러스성 종양이 발생한다. 암 중에는 급성백
혈병이 가장 많아 전체의 35~40%를 차지하고 있다. 소
아암의 발생 빈도는 인구 10만 명당 약 13~14명으로, 전
체 암 환자의 약 1%를 차지한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약
1,200~1,300명의 어린이·청소년이 소아암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한다.

소아암이 발생하는 소아 악성종양의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함께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에 비해 소아암의 경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조직(호혈, 신경, 결합조직)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 물리적 요인, 화학 물질 및 미생물 감염이 있다고 한다. 원자 폭탄, 방사선 노출, 방사선 치료, 자외선 조사, 화학 물질, 사이에 포함된 발암 물질들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밖에 바이러스 감염도 암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현재 보고되고 있다.

소아암은 성인암과 다르게 주로 육종(肉腫, sarcoma, 비상피세포성)인 특징을 갖는다. 소아의 경우는 조기 암을 집단 선별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신경모세포종의 경우 종양에서 분비하는 물질인 바닐릴만델릭산(vanillylmandelic acid)이 소변에서 증가할 수 있다. 소아암은 성장이 빠르고 침윤성이며 조직이나 장기의 심부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진단 당시에 이미 80% 정도가 원격 전이가 일어난 상태로 발견된다. 소아암은 성인암과 달리 발암물질에 노출된 병력이 거의 없으므로 예방이 어렵고 치료도 어려웠다. 그래서 소아암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불치병이라고 불릴 질병이었지만 최근 소아암은 성인암보다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좋아 치료 성적이 훨씬 좋은 편이고 소아암은 전체적으로 5년 생존율이 82.9%이며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다.

소아암은 꾸준히 치료하면 전체적으로 약 80% 이상이 완치된다. 그러나 '완치'라 함은 원래의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경우로,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건강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소아암 치료 기간은 성인에 비하여 더 길며 치료 과정도 복잡하다. 치료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항암화학요법, 수술, 방사선 치료를 병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아암은 진단 시 전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로 이 세 종류의 치료가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골수와 말초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과 같은 치료방법을 쓰기도 하면서 치료를 한다고 한다.

마침내 이런 과정을 모두 끝내고 완치된 소아암 환자는 사회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완치가 되었다고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 청소년 시절 “암”과 투쟁했다는 것은 평범한 청소년들은 경험할 수 없는 특이한 경험이다. 그렇기에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을 심리적 괴로움과 육체적 아픔, 남들과 다르다는 죄책감, 억울함 등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고 본인의 모습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병원 생활을 하다 사회로 나가니 모든 게 어색할 수가 있고 적응이 힘들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 시기에 힘든 일은 겪은 이들은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고민하고 아픔

을 느낄 수 있다.

소아암 완치자 청소년들을 위해 지어진 건강 심리학자 김의연에 **〈소아암 완치자를 위한 12가지 심리 제안〉**이란 책에선 다양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한 발짝 더 도움이 될 솔루션 12가지를 제안했다. 또 치료 후 사회로 돌아가는 완치자들을 위한 조언도 담았다.

첫 번째로 소아암 완치자는 치료 후에도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완치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자기 관리(셀프케어)이므로 자기 몸 상태와 치료받았던 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완치판정 이후에도 자기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소아암 완치자에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완치자들은 항상 자신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로 완치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의 작가 김의연(간강심리학자)은 이 경험을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거나 북극이나 남극 탐험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소아암과 투쟁한 것은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특별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완치자를 성장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정신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원치 후 다시 학교에 돌아간다 해도, 동갑인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한다는 걱정, 그동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진도를 잘 따라잡을 수 있을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학업 외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또 항암치료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수업 참여에 힘듦을 느낄 수 있어 친구를 사귀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건 아픈 것과 거리가 멀다. 치료 후에도 충분히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다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적응할 수 있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만약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학교 동아리 활동 적극 참여, 취미 관심사 공유로 친해지는 것도 방법이다.

네 번째, 소아암 경험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은 원치자들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 즉 치료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치료 경험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이때 자기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치료를 위해 항상 곁에 있고 치료비를 벌여오기 위해 고생했을 가족들과 부모님의 수고도 매우 소중하다. 소아암과 싸우는 동안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지탱해 주고 응원하고 걱정하고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빌면서 노력했기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서로 버틴 것이다.

가족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며 소아암을 이겨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잊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념 형성이다. 자기 개념은 사춘기에서 주로 경험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같은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에서 출발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형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긍정적인 자기 개념 발달할수록 자신감이 오르고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서 학업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영역에서 성취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 암 발병 경우 한창 자기 개념이 형성될 시기라서 투병 생활 동안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나는 왜 소아암에 걸렸을까, 다른 사람

들과 달리 난 평범하지 못하는가,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등등 다양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적으로 후유증이 남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후유증이 없어도 마음에 상처 남을 수가 있는데 이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의 책에서 말한 내용은 꼭 소아암 완치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자기 개념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게 통찰하는 기회는 중요하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들 인생에서도 큰 과제가 될 수 있다.

소아암 완치자들에게 병원 치료 아픔을 극복하는 것은 스스로와 부딪치는 것이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과도 같다. 완치자들의 가족과 주변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알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환자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익숙해진 것들이 사회에선 비난 받을 수 있고 남들과 달리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완치자들의 과거를 모르는 타인의 가벼운 발언으로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소아암 완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남들은 모르는 각자만의 아픔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픔의 존재를 자체를 모르는 타인들의 작은 행동으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작은 말과 태도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타인과 더 신뢰되고 좋은 상호작용 소통을 위해 자신이 내뱉기 전 말과 행동을 숙고해 본 뒤 신중한 언행 생활을 하면 건강한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돌아올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능동중3 양진재 기자



문 화



말의 트렌드 정유라 지음

디지털 언어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여 그곳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다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넘어온 언어를 뜻한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주요 통용되지만 손끝에서 시작해 온라인에 퍼진 말들은 다양한 사람의 입과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된다. 결국 '디지털'이라는 수식은 사라지고 이 시대의 '언어'로 남는 것이다. 디지털 창조자는 다수의 대중이며 당대를 가장 또렷하게 드러내는 생활의 감정이 녹아 있다. 디지털 언어는 생각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무엇보다 생생하다. <말의 트렌드-정유라 지음>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언어'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왜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할까? 먼저, 새로운 매체에 최적화된 언어가 다시 생겨나면서 우리의 문법이 바뀌었다. 둘째, 우리 시대의 감수성이 변화하면서 언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셋째,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모국어의 어휘력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명백한 자산이다. 새로운 시대의 말을 배우는 일은 더 바르게, 더 나은 삶을

말의 트렌드

“텐션과 사랑이 넘치는 요즘 말 탐구서, 말의 트렌드”

사는 기회를 선사한다. 언어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며, 우리는 단어장을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도서 <말의 트렌드>에서는 새로운 언어가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지고 확장되는지를 다룬다. 유행하는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줄임말은 일상화, 전전화, 암호화의 세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말을 줄임 목적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이상 제한적인 권위에 놓여있지 않다. 익명의 누리꾼의 표현과 댓글, 해시태그가 다수의 개인에게 강력한 공감을 받고 사용량이 늘면 새로운 표현으로 인정받는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생활 풍경을 읽기에 가장 좋은 자료는 해시태그다. 이러한 해시태그와 제목은 노출성을 고려해 지어지기 때문에 '나의 개성이 아닌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수많은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언어화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특정 영역에서 당대에 끼치는 영향력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인증의 언어, 서로를 연결해주는 관계의 언어, 일상을 이해하는 마음의 말인 심리학의 언어 등 우리는 언어의 기능을 많이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차별이 섞인 젠더의 언어와 자본주의의 언어 등 새로운 고침이 필요한 언어들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드라마의 언어, 광고의 언어가 있다.

MZ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습관을 그들의 가치관과 연결하여 볼 수도 있어야 한다. MZ세대들에게 취향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취향은 무엇보다 유망한 자산이며 이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취향이 언어습관의 밑바탕이 되고, 묵묵히 굳건하게 내 취향을 가꾸다 보면, 그렇게 탄탄해진 세계가 훗날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누군가의 성격을 묘사할 때 MZ세대들이 꼭 언급하는 것 중 하나인 자존감은 또 다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하며 이들에게 자신의 고유함과 정체성이 나타나는 스토리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요소'이다. 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지만 타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들에게 자존감은 측정하기 복잡하고 관리하기 까다로운 감각이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따뜻한 시선과 말을 건네야 한다.

또한, MZ세대들은 전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디테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색에 관한 사람들의 감식안이 발달한

만큼, 색조와 색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특히 혼란과 모호함을 최소화하고 입체적인 언어로 자신의 취향과 기호를 나타내고 싶어 한다. 이처럼 이들이 사용하는 세밀한 언어들은 애정이며, 오해를 최소화한다. 자신만의 취향을 띄는 아이টে็ม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도 대세이다. 다이어리를 꾸미고 스마트폰을 꾸미고 내 방도 꾸미는 행위들을 통해 더욱더 근사해진, 타인에게 전해지는 기록물은 어쩌면 사랑이 함축된 것이다. MZ세대들에게 '사생활'이란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로는 공감을 통해 헤쳐 모이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한다. 이 과정에서 저마다 상처를 받은 언어가 달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말로 인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작가는 서로에게 주는 마음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언어가 발화하는 위치를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내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세계에 공감해보는 것이다. 올바른 언어 습관을 익히면 우리의 '마음 받'은 점차 비옥해질 것이다. 내 마음 받이 건강하다면 내가 하는 말도 건강해진다. 같은 언어도, 같은 상황에서도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더 나은 포용의 언어를 찾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포용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좀 더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책에서는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기 위해 우리는 사물을 공평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 나쁜

언어가 전염되듯이 좋은 언어도 전염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불편한 언어를 무작정 비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그 언어를 고쳐 쓰는 것이다. 의미와 가능성으로 다시 채우기 위해 환기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다. 익숙함의 성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에게 더 넓은 길이 열린다. 더 세밀하고 참신한 표현을 고민해서 내 감정과 경험에 가장 적합한 언어를 붙이려는 시도는 우리의 언어에 고유한 향을 입힌다. 그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애정과 세상에 대한 관점을 다시 적립하는 일 역시 좋은 경험이다. 어휘력도 '언어 감수성'하면 빠질 수 없다. 더 나은 언어를 찾아서 불편한 언어를 고쳐 부르는 일, 더 많은 사람들 존중하는 언어를 고민하는 일이 우

리의 어휘력을 키운다. 어휘력은 결코 단어를 많이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휘력은 상황과 맥락에 가장 적합한 어휘를 떠올릴 줄 아는 힘이다.

이 책은 결국 우리의 언상을 점검하고 더 나은 언상을 가꾸어 나가자는 긴 제안이라고 작가 정유라는 전한다. 누군가의 마음 받을 들여다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살피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언상을, 온기와 향기를 지니기 위해 우리 사회의 시류를,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우리가 '말의 트렌드'를 읽으려 하는 관심을 지닌다면 '나 자신의 언어 습관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청계중2 박예진 기자

신조어 관련 설문 조사 내용

나는 신조어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78.8% (82명) 학생들이 찬성하였고, 21.2% (22명)의 학생들이 반대하였다.

79%

나는 신조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안다.

61.5% (64명)의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38.5% (40명)의 학생들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62%

나의 언어습관이 올바르게 있다고 생각한다.

47.1% (49명)의 학생들이 올바르게 있다고 응답했고, 52.9% (55명)의 학생들이 올바르게 아니라고 응답했다.

47%

나는 말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

68.3% (71명)은 말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31.7% (33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68%



그린나래 29호

◎ 발행기관 화성시청소년수련관

◎ 발행인 윤창주

◎ 첨삭지도 김은미(서울시립대학교_컨설턴트)

김경은(화성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기자단 담당)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강설화(안화고1), 김도연(중2), 김연우(병점중2), 이지우(청계중1), 육심준(안백중2), 김민아(와우중2), 손지후(동탄목동중2), 홍서준(동탄목동중2), 최정원(청계중1), 이호준(안화중1), 이환희(능동중3), 김보민(석우중1), 양진재(능동중3), 박예진(청계중2)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http://unicenter.hswf.o.kr/>